

에이피알, 디바이스·화장품 ‘투 트랙’으로 글로벌 공략

신제품 ‘부스터 프로 X2’ 출시 ‘메디큐브’ 앞세워 해외 진출 생산·기술력 내재화에 중점

K뷰티 대표 주자 에이피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 트랙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기존에 강점을 쌓아 온 ‘뷰티 디바이스’ 부문에서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화장품’ 유통망 확대를 병행한다.

23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최근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을 공개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부스터 프로 X2는 이중 기능성을 갖춰 에너지 전달력을 높이고 화장품 흡수 효율성을 개선했다.

기기 표면에 설계된 네 개 전극이 피부 표면은 물론 보다 깊은 피부층에 에너지를 침투시킨다. 기존 핵심 기능 4가지에 신기능 3가지를 추가해 총 7가지 모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듀얼 모드’는 기기 표면을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서로 다른 모드를 동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 ‘부스터 프로 X2’

시 구현하는 신기술이다. ‘마스크 모드’ 역시 새로운 진동 유형과 주파수를 적용한 것으로 시트형 마스크팩 사용 시 활용 가능하다.

‘인공지능 모드’는 뷰티 디바이스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가 기기 사용 시간, 개인 피부 고민 등을 복합 설정하면 최적의 사용 방법을 제안한다. 또 각 모드별 강도는 기존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 대표 제품 ‘토너패드’ 제품군 /에이피알

5단계에서 6단계로 늘려 피부 상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 출시는 기존 브랜드 주력 제품 ‘부스터 프로’ 출시 후 약 2년 만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에너지 기반 디바이스(EBD) 의료기기 1종도 내놓을 예정이다. 자체 개발 및 생산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관련 전임상, 임상,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에이피알은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뷰티 디바이스’ 가능성을 입증해 왔다. 부스터 프로의 경우, 2021년 첫 출시 후 2023년에는 국내 시장점유율 32%를 기록하며 해당 시장 1위에 올라섰다. 이후 2026년 1월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600만 대에 달한다.

에이피알은 이처럼 뷰티 디바이스 성장세를 확보한 가운데, 스킨부스터 등 화장품 사업을 고도화해 지속가능한 K뷰티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들어 신규 시장 개척을 본격화하며 해외 현지 유망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지난해에도 글로벌 주요 시장인 미국, 일본 등에서 외형 성장을 이뤄내는 한편, 기타 지역에서도 세자릿수의 실적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다. 2025년 4분기 기준, 미국 매출 2551억 원, 일본 매출 690억 원, 기타 지역 매출 1188억 원 등이 집계된 가운데, 이는 각각 전년 대비 270%, 290%, 191% 커진 규모다.

올해는 K뷰티 신흥국인 유럽, 인도 등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정통 뷰

티 강국 유럽에서는 글로벌 뷰티 편집숍 세포라를 통해 현지 공략에 나선다. 인도에서는 인도 최대 뷰티 플랫폼 나이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에이피알은 해당 지역 모두에서 우선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 판매를 시작한다. 피부 관리 기초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들로 소비자 유입을 확대하고 콜라겐, PDRN 등 고기능성 제품으로 소비자 수요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뷰티 디바이스뿐 아니라 화장품 부문에서도 에이피알은 생산 및 기술력 내재화에 중점을 둔다. 앞서 경기 평택 소재 에이피알팩토리 제3캠퍼스는 차세대 성분인 PDRN 소재 사업을 위한 생산기지로 알려졌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이번 부스터 프로 X2는 기존 뷰티 디바이스의 기술력과 사용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기반의 홈 뷰티 디바이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개인 맞춤형 뷰티 경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셀트리온 “송도캠 사망사고, 재발방지 총력” 삼성바이오로직스, 벡터 제작 내재화

2공장 추락사고로 근로자 1명 사망 “안전 관리 시스템 원점서 재확인”

셀트리온은 23일 중대재해 발생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 2공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 및 고용노동부의 현장 확인과 사고원인 분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셀트리온 인천 송도 2공장에서 캐노피 보수작업 중 추락 사고가 발생, 협력 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

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셀트리온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협력 업체 근로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밝혀질 사고 원인이나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유가족분들과 슬픔을 함께 하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기관의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향후 사고가 재발하

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고의 경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셀트리온은 “사고 당시 사전 안전 절차와 장비 점검은 마친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확인 중에 있다”며 “모든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확인하고, 캠퍼스 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전수 점검하는 등 안전 대책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올해 3월 초 SK바이오사이언스 新 사옥 송도 글로벌 R&PD 센터를 방문한 IDT 바이오로직스가 셀리 최 대표(아랫줄 왼쪽부터 다섯 번째) 및 주요 경영진들이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아랫줄 왼쪽부터 여섯 번째) 및 주요 경영진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사 자회사 IDT, MSD와 백신 계약

에볼라 백신 생산 협력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기업 MSD와 진행 중인 에볼라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회사 IDT 바이오로직스(IDT Biologika)와 생산 협력을 강화한다. IDT 인수 이후 이어져 온 전략적 결합이 글로벌 프로젝트의 성공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MSD(미국 머크) 및 힐레만연구소와 추진 중인 2세대 자이르 에볼라 백신 개발과 관련, IDT와 원제 위탁 개발 및 생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제기구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지난 1월 약 3000만 달러 규모의 개발비 지원을 발표한 후 이뤄진 후속 절차다. /이청하 기자

오스템파마 약국 전용 ‘옥치’ 론칭

양치 습관으로 치아 미백 관리

오스템파마가 약국에서 기능성 구강관리 브랜드 ‘옥치’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첫 브랜드 제품은 미백 치약이다. 일상에서 양치 습관만으로도 지속적인 미백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획했다.

옥치 미백 치약은 과산화수소를 3.0% 함유했다. 치아 미백은 치아 표면에 착색된 색소를 분해해 밝기를 개선하는 원리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는 색소를 효과적으로 분해해 치아 미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핵사메타인산나트륨 성분을 함께 처방해 치아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색소 재부착을 줄여 착색 예방에 도움을 준다.

옥치 미백 치약은 치과대학 임상에서도 효과를 입증했다. 동일 주성분을 적용한 시험에서 4주 후 치아 밝기 개선율 85.13%, 12주 후 개선 효과 확인 비율 100%를 기록했다. /이청하 기자

론칭 기념 웨비나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벡터 제작 서비스 내재화를 통해 위탁개발(CDO)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O 서비스 영역 중 마스터세포은행(MCB) 생산과 벡터 제작 서비스를 내재화하고, 론칭 기념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웨비나는 ‘벡터 제작부터 임상시험계획서(IN) 제출까지의 가속화: 통합된 세포주 개발을 통한 9개월 개발 타임라인 달성’을 주제로 지난 19일 열렸다.

기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주 파트너를 통해 MCB 생산과 벡터 제작 서비스를 해왔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벡터 구축부터 IND 제출까지 전체 과정을 9개월 내에 완료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제시한다. 고객사의 요구에 최적화된 ‘엔드 투 엔드’(end-to-end)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MCB 생산과 벡터 제작 서비스는 항체의약품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공정이다. 항체의약품은 동물세포에서 만들어진 특정 항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벡터는 해당 항체 제작에 필요한 유전 정보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유전자 전달체다.

또 세포 내 항체 발현을 최적화하는 다양한 조절 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밀한 벡터 설계가 필수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신약 후보물질 및 관련 데이터의 제3자 이관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외부 노출을 차단, 개발기간 단축뿐 아니라 데이터 관리의 일관성 확보, 고객의 지적재산권(IP) 보호 강화에 나선다. /이세경 기자

LG화학, ‘통풍 신약’ 중국 임상3상 진입

상업화 위한 최종 단계 착수

LG화학은 통풍 신약 후보물질 ‘티굴릭소스타트’의 중국 라이선스를 가진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가 중국 임상 3상 첫 환자 투약을 시작하며 상업화를 위한 최종 단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노벤트는 이번 3상 시험에서 600명의 통풍 환자를 모집해 기존 요산강하제인 페복소스타트와 비교 평가를 진행한다. 24주째 혈청 요산 수치 목표 달성률, 1년 장기 복용 안전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앞서 이노벤트가 중국에서 독자적

로 수행한 임상 2상 결과, 티굴릭소스타트 모든 용량군에서 페복소스타트 대비 유의미하게 더 강력한 요산 강하 효과, 양호한 안전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노벤트는 2011년 설립 후 다수의 항암 및 면역질환 신약을 개발해 상업화했고 최근 통풍발작 치료제 등 연계 신약 과제를 추가하며 통풍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성인 중 통풍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고요산혈증 인구 규모는 약 1억 8513만 명으로 유병률은 17.7%에 이르며 실제 통풍 인구 규모는 약 2556만 명, 유병률 3.2%로 보고됐다.

/이청하 기자